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코로나19' 대응 관련 스타트업 사업 지원
사회·복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지침 발표
공공도서관에서 무선인터넷기기 대여
행재정·교육 청소년 대상 단기 현장학습 프로그램 '시청 학교' 운영

환경·안전 가솔린 판매 시 본인 여부, 사용목적 등 확인 의무화
도시교통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임시 자전거도로 확대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코로나19’ 대응 관련 스타트업 사업 지원

프랑스 파리시 / 사회·복지

프랑스 파리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지원. 파리엔코(Paris&Co)의 의료 및 건강 신생사업 플랫폼을 통해 감염 평가 프로그램, 가정용 재활기구, 의료 전문 네트워크 시스템 등 ‘코로나19’ 격리 기간과 그 이후 의료 관련 사업에서의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보조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이 시급
 - 건강 위기상황에 맞서 의료분야 신기술 개발 요구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 및 재활기구 필요
- 파리엔코(Paris&Co)는 ‘테크 케어 파리(Tech Care Paris)’를 통해 건강 및 웰빙 신생 기업들을 지원
 - 파리엔코는 파리시가 운영하는 파리 경제발전과 신기술 사무소로, 파리에 있는 프랑스 및 외국 기업의 스타트업 사업에 있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며, 120개의 대기업 및 행정기관과 연계해 1년에 500개 이상의 신생 기업들을 지원
 - 신기술 분야에 따라 플랫폼¹⁾을 만들어 창업 지원금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테크 케어 파리’는 건강 및 웰빙 분야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는 플랫폼

주요 내용

- 파리엔코의 테크 케어 파리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스타트업 사업 지원
 - 시는 파리엔코의 테크 케어 파리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는 코비드 헬프(Covid-Help), 이지게인(Ezygain), 옴니독(Omnidoc) 등의 신생 기업들을 선정해 지원

1) Welcome city lab(여행업), Level 256(인터넷게임 등의 e-sport), LINCC(문화 및 창조), Labo de l'édition(도서출판), French Event Booster(이벤트 행사), Le Tremplin(스포츠), Smart Food Paris(식품), Tech Care Paris(의료 및 웰빙), Ville Durable(환경), Arc de l'innovation(파리 동쪽 도시계획), Le Swave(핀테크), Le D3(고객관리), Rhizome(인력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이 있음

- 테크 케어 파리 플랫폼은 프로젝트에 지원한 건강 및 웰빙 분야의 신생 기업들을 심사²⁾해 최대 3만 유로(약 4,200만 원)까지 파리市에서 창업 지원금을 제공
 - 이 플랫폼은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개별 코칭, 지역·국가·국제적 의료분야 사업 정보망 구축, 원하는 경우 파리 소재 사무실 제공, 일대일 맞춤형 교육 등을 포함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제공
 - 또한, 기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맺기, 신생 기업들에게 투자할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를 함께 모색, 다른 신생 기업과의 만남 주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신생 기업에 특화된 서비스³⁾를 안내해주는 등의 역할을 함
 - 테크 케어 파리 플랫폼은 창업 프로그램에 연간 12,000유로(약 1,670만 원), 사업 발전 프로그램에 연간 5,000유로(약 700만 원)를 투자
- ‘코비드 헬프’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평가
- 건강 관련 인공지능 개발에 특화된 아남네스(Anamnèse)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소방구조 의료협회(Atraksis)와 함께 ‘코비드 헬프’라는 감염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 검사를 원하는 지원자는 본인의 환경에 관한 설문지(감염자와 접촉 여부, 가족 수, 위험 사항 등)를 온라인으로 작성
 - 매일 아침 코비드 헬프에서 자동으로 발송하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변화사항을 표시하여 건강상태를 알림
 -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해 감염 여부를 평가
 - 이 플랫폼을 이용해 알리에(Allier), 이블린(Yvelines), 센 에 마른(Seine-et-Marne), 콕스 뒤 쉬드(Corse-du-Sud) 등 4개 데파르트망(départements)⁴⁾에 있는 약 12,000명의 소방관들이 검사에 자원해 건강상태를 점검
 - 질문 내용과 프로그램은 프랑스 공공보건부에서 발표한 감염 여부 점검 사항에 따라 구성되고 업데이트됨
 - 주목적은 감염확산을 막고 증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음
 - 소방관, 자원봉사자, 의료진 등 감염자와 접촉하기 쉬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진료 중인 의사들도 증세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추적 및 점검하는 데 용이
- ‘이지게인’으로 가정에서 보행 재활운동이 가능
- 러닝머신과 비슷한 형태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행 재활기구를 개발

2) 최근 5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건강산업, 예방, 웰빙, 의료 시스템, 진단과 간호 등 6개 영역 16개 테마에 맞춰 기업들을 선정

3)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계산, 분석, 모바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통합 등 17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년간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4) 행정구역의 도(道) 단위

- 두 개의 끈이 연결된 하네스(harnais)⁵⁾를 이용해 직립이 어려운 환자를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도록 도움
- 단계별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안경을 통해 가상공간을 산책하는 효과도 구현 가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활센터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빌리거나 구매 가능
-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원격치료가 가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그림 1] 가정용 직립 및 보행 재활기구 이지게인(Ezygain)

출처: www.ezygain.com

- ‘옴니독’의 뉴로-코비드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추신경계 환자를 치료
 - 2019년 2월에 시행된 프랑스의 공공보건법에 따르면, 원격치료 및 처방이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를 계기로 의료전문가가 원격으로 각 지역의 일반의사들을 돕는 ‘옴니독’이라는 의료 전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옴니독은 뉴로-코비드(Neuro-COVID)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치료실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를 도움
 -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대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자동으로 연결
 - 복합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들의 상태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

5) 등산가, 낙하 요원 등이 사용하는 안전띠로 몸에 착용하는 보조기구

- 현재 약 110명의 신경학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약 10건의 도움 요청에 대응
- ‘코로나19’ 감염자 외에 신경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활용
- 옴니독의 ‘코로나19’ 관련 네트워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의사들에게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대한 도움을 주는 약 10개의 다른 네트워크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유료로 운영 중

<https://www.paris.fr/pages/les-start-up-mobilisees-dans-la-lutte-contre-le-covid-19-7887>

<https://www.anamnese.me/logiciel/covidhelp-depistage-tele-suivi-tele-surveillance-coronavirus>

<https://www.ezygain.com/>

<https://www.paris.fr/pages/mieux-travailler-apres-la-crise-les-solutions-des-start-up-7877>

<https://techcare.parisandco.paris/>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지침 발표

중국 상하이시 / 사회·복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도 무더운 날씨로 마스크 착용을 감감해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짐에 따라, 상하이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 감염 위험이 크지 않은 장소에서는 시민들이 의료용 마스크나 외과 마스크를 휴대하여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배경

-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을 감감해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짐
 - 이에 상하이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

주요 내용

- 일반시민의 마스크 착용지침
 - 대중교통, 의료기관, 복지기관, 학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 집안에서 생활하거나,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
 - 야외, 공원, 야시장에서 타인과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경우 마스크 착용 불필요
 - 다만, 이 경우 개인이 일회용 의료마스크나 외과마스크를 휴대하여 필요에 따라 착용하도록 권장
 - 마트, 쇼핑몰, 식당, 전시관, 박물관, 체육관, 헬스장 등 실내에서 활동 시 사람이 적고 통풍이 잘되고 1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불필요
 - 이 경우에도 개인이 일회용 의료마스크나 외과마스크를 휴대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권장
 - 밀폐된 공간이나 인파가 밀집된 지역, 타인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개인이 마스크를 휴대하여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장
- 업무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지침
 - 쇼핑몰, 대중교통, 레스토랑, 식당, 여관,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마스크 착용 필수

- 유치원 교사는 마스크 착용 필수
 -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서 청소나 급식 등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마스크 착용 필수
 - 대학교 교내 전체,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 타인과 1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환경에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은 마스크 착용 필수
 -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교도시설, 정신보건 관련 기관의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
 - 식품 가공 및 판매자는 마스크 및 장갑 착용 필수
- 기타 특정인의 마스크 착용지침
- 발열, 코막힘,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 본인 및 접촉자, 동행인, 간병인이 의료기관이나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외과마스크 혹은 KN95/N95 등급 또는 그 이상의 방역마스크를 착용
 - 외과마스크는 보통 병원에서 착용하는 마스크로서 시중에서 구입 가능
 - N95 마스크는 공기 중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줘 보건용으로 사용
 - 중국 식품의약품이 허가한 KN95 마스크는 우리나라 KF94 마스크와 비슷한 차단 효과가 있음
 - 심각한 폐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
 - 노인, 허약자, 만성질환자는 외출 시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
 - 3세 이하의 유아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

https://www.sohu.com/a/402633286_179550

<https://new.qq.com/rain/a/20200616A0BH1S00>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공공도서관에서 무선인터넷기기 대여

미국 댈러스시 / 사회·복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Dallas)시는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도서관에서 무선인터넷기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 공공도서관 회원들은 무선인터넷 기기를 30일간 무료로 빌려 집에서도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배경

- 오늘날 인터넷은 구직 및 학습 등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집이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약계층의 공정성(equity) 문제가 발생
 - 미국 내 45%의 가정이 인터넷 접속 불가
 - 댈러스 지역 42%의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데, 주로 시의 남동쪽 지역에 밀집
 -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
- 인터넷 접속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도서관 이용 가능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이 제한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에서는 무선인터넷기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

주요 내용

- 2020년 3월 2일부터 댈러스시 10개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기기 대여 서비스 시작
 - 시는 예산을 마련하여 무선인터넷기기 900대를 마련
 - 대여 가능한 도서관은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제적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댈러스 시민, 댈러스 소재 공립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댈러스시 공무원은 누구나 빌릴 수 있음
 - 도서관 카드 한 장당 한 대의 기기를 빌릴 수 있으며, 기기 한 대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여러 대의 전자기기를 연결할 수 있음

- 대여가 가능한 도서관을 방문하여 기기를 빌릴 수 있으며, 반납은 모든 공공도서관의 도서반납함 및 창구에서 가능
 - 대여 기간은 30일로 연장 불허
 - 대여 기간 종료 후 반납하지 않은 기기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며, 벌금으로 107.90 달러(약 12만 원)의 기기 요금ی 청구. 하지만 기기를 반환하면 청구되었던 벌금이 없어짐
 - 기기가 모두 대여 중일 경우 예약대기를 걸 수 있음
- 빌린 무선인터넷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는 미국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 (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을 통과한 콘텐츠에 한함

<http://www.dallascitynews.net/dallas-public-library-allowing-residents-take-internet-home-hotspot-lending>

<https://www.dallasnews.com/news/2019/09/09/addressing-the-digital-divide-dallas-prepares-to-lend-out-wi-fi-hot-spots-in-libraries/>

https://dallascityhall.com/government/citymanager/Documents/FY19-20_Memos/Memo Mobile Hotspots 2.20.20.pdf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청소년 대상 단기 현장학습 프로그램 ‘시청 학교’ 운영

캐나다 에드먼턴시 / 행정·교육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 학교(Cityhall School)’를 운영. 1주일 동안 도시의 역사, 도시정책 등을 배우거나 시 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청 학교’ 수업 운영방식

- 매년 25회의 수업이 진행
 - 담당직원 인건비, 학생 운송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약 800달러를 시예산에서 집행
 - 시청 회의실을 이용해 최대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학생들은 9월에 ‘시청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 코디네이터와 함께 수업 주제를 논의
 - 코디네이터는 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에 맞는 활동을 계획

수업 내용

- ‘시청 학교’ 수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영리 복지단체 방문
 - 시 소재 州법원 방문
 - 전철을 타고 시내를 두루 견학
 - 도시정책을 주제로 시장과 질의응답 시간 갖기
 - 견학 감상문 쓰기
 - 시청사 견학
 - 구시가지 극장 방문
 - 도서관 방문
 - 신시가지의 대형 하키경기장 ‘로저스 플레이스’ 견학
 - 에드먼턴 컨벤션센터 방문
 - CBC 국영방송국 견학
 - 오피코 타워 옥상 전망대 방문

- 시기와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상시 견학 이외에도 예술가, 사회운동가 등을 초청하여 강의 진행
 - 인형극 연출가, 환경운동가, 설치미술가, 과학자 등을 초빙
 - 계절·시기별로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할로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등을 진행

‘시청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모태

- 이 프로그램의 모태는 ‘질문하는 자세(Inquiring Minds)’라는 학습모델임
 - ‘질문하는 자세’라는 학습모델은 질리언 키드(Gillian Kydd)와 돈 하비(Don Harvie)가 주도한 현장학습 기반의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시청 학교’ 교육방식의 근간이 됨
 - 프로그램 모델을 창안하고 운영하고 있는 ‘질문하는 자세’ 파트너십은 교사들에게 교실을 커뮤니티 사이트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박물관, 소방서, 시민회관,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일주일 동안 대안적인 교실로 이용
 - 학생과 교사는 견학 및 관람, 감상문 작성, 다양한 창의적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 주도, 실습, 질문 기반 학습 및 탐구에 참여
 - 1990년대 캘거리에서 시작된 이 몰입형 학습모델은 동부 뉴펀들랜드(Newfoundland)에서 싱가포르까지 확대되어 ‘오픈 마인드’, ‘오픈 캠퍼스’, ‘질문하는 마인드’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청 학교’의 성과

- 2009년부터 약 5,000명의 학생들이 Edmonton Inquiring Minds 사이트 기반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시청 학교’에 참가
 - 도시행정과 거리가 먼 어린 학생들의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
 - 학생들은 일주일간 매일 개별 일지를 작성
 - 사회적 책임, 환경, 역사 및 민주주의 등을 중심으로 느낀 점, 관찰한 점 등을 기록하고, 市에서는 이를 보존
- 일주일간의 교육 후 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늘어날 뿐 아니라 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됨

유사 프로그램 사례

- 액티브 생활 학교: 지역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 소개와 함께 스케이트, 수영 등의 체육활동을 곁들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항공 학교: 공항과 항공사를 방문하여 항공과 항공안전에 대해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비행연합회, 공항공사, 동호회 등이 연계되어 진행
- 식물원 녹색 학교: '느리게 배우기'를 모토로 한 이 프로그램은 자연과 개별 학생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오감을 통해 동식물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그림 1] 에드먼턴시의 공공 대중교통 차고지 견학 프로그램

출처: https://www.edmonton.ca/attractions_events/city_hall/city-hall-school.aspx



[그림 2] 에드먼턴 시장이 '시청 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

출처: https://www.edmonton.ca/attractions_events/city_hall/city-hall-school.aspx

City Hall School, City of Edmonton,

https://www.edmonton.ca/attractions_events/city_hall/city-hall-school.aspx

5,000 and counting: Edmonton kids flock to City Hall School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students-city-hall-school-1.3955953>

Inquiring Minds

<https://ourinquiringminds.wordpress.com/>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가솔린 판매 시 본인 여부, 사용목적 등 확인 의무화

일본 / 환경·안전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교토市 후시미区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솔린을 고객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본인 여부 확인, 사용목적 확인, 판매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성령(省令)’을 시행

배경 및 목적

- 가솔린 등 위험물은 방화 등의 범죄에 악용되거나 큰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발생한 교토府 교토市 후시미구(伏見区)의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솔린을 고객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본인 여부 확인, 사용목적 확인, 판매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된 성령(省令)’을 공포·시행
 -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본인 확인 방법 등을 정리하고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협조를 얻어 해당 내용을 안내

주요 내용

- 가솔린을 고객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시를 요구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함
 - 예외적으로 이전에 본인 여부 확인을 한 고객,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으로 해당 사업소에서 성명이나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나 제휴 기업이 발행하는 회원증·조합원 카드 등을 사용하고 해당 사업소에서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사원증(사진 필수)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판매자는 또한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함
 - ‘농업용 기계 연료’, ‘발전기용 연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 판매자는 판매일, 고객 성명, 고객 주소, 본인 확인 방법, 사용목적, 판매수량 등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보관
 - 대장(臺帳)을 작성하는 방법 외에도 고객이 성명 등 필수사항을 작성한 주문서를 보관

하거나, 고객 성명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도 판매기록 작성으로 인정
- 고객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알리고
해당 정보를 다른 고객이 보지 못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지진,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장시간 정전이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본인 여부 확인, 사용목적 확인, 판매기록 작성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고객이 본인 여부 확인 서류 제시 등을 거부하여 본인 확인 등을 할 수 없었음에도 가솔린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방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https://www.city.osaka.lg.jp/shobo/page/0000476117.html>

<https://www.fdma.go.jp/laws/tutatsu/items/5a57e6ef9e8991087e012531225217c47bfcea67.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임시 자전거도로 확대

독일 베를린시 / 도시교통

독일 베를린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자유롭게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부터 임시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계획을 실행.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지역구는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함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의 하나로, 자전거 관련 교통시설 확충과 임시 자전거도로 확장 사업이 시범프로젝트로 도입
 -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 운전자 간 거리가 멀어 감염 위험이 적음
 -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의 승객 수를 줄여 대중교통수단 내부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
- 이 프로젝트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팝업 자전거도로(Pop-Up-Bike-Lanes) 프로젝트의 일환
 - 팝업 자전거도로 프로젝트란 자전거와 관련된 새로운 교통전략을 추진하고자 도입한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도입한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코로나 자전거도로(corona cycle path)’로 불림
 - 이 프로젝트는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보고타, 베를린과 같은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

주요 내용

- 베를린 환경·교통 및 기후보호 상원부(Die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Umwelt, Verkehr und Klimaschutz)는 ‘자전거 시설의 임시 설립 및 확장’ 계획을 작성
 - 이 계획은 팝업 자전거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를린 환경·교통 및 기후보호 상원부와 각 지역구가 함께 논의하여 지역구별로 임시 자전거도로를 계획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노란색 차선과 안전펜스 설치로 자동차 차선과 자전거 차선을 구분하여 표시
 - 임시 자전거도로는 일반적으로 하루 만에 설치 가능

- 현재 임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곳과 자전거도로로 계획된 곳에 설치
 - 임시 자전거도로 확장은 임시 조치이며, 추후 영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베를린에 약 21.5km의 임시 자전거도로를 설치(2020년 6월 29일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베를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사상 최고치
 - 지난해 6월 기준 180만 명의 자전거 이용자가 2020년 6월 기준 230만 명으로 증가

일부 정치인 및 지역구의 찬반 입장

- 베를린 시의회의 여당(사민당, SPD)¹⁾ 소속 스벤 콜마이어(Sven Kohlmeier) 의원은 임시 자전거도로 확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
 - 자전거 교통량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정투입이 부족
 -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
 - 건설현장과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임시로 표시한 것은 건설현장과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어렵게 함
 - 바닥에 LED 표시등을 설치하는 등 고정된 표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미테(Mitte), 판코우(Pankow), 노이켈른(Neukölln) 지역구 등은 임시 자전거도로 확충을 지지
 -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치가 없다는 입장
 - 자전거도로 폭이 넓고,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구분되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며, 자전거도로 길이가 충분하므로 더 안전하다고 평가
 - 자동차와 자전거의 분리가 자전거 운전자의 주관적인 안전감을 더욱 높인다는 평가도 있음
- 말잔-헬러스도프(Marzahn-Hellersdorf), 슈테글리츠-젤렌도르프(Steglitz-Zehlendorf) 지역구 등은 우려를 표함
 - 그동안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자전거도로 확장으로 주차공간이 축소되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함

1) 베를린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이 속한 정당이 사민당(SPD)



[그림 1] 임시 자전거도로 모습

<https://taz.de/Neue-Radwege-durch-Coronakrise/!5681083/>

<https://www.tagesspiegel.de/berlin/radverkehr-um-25-prozent-gestiegen-berlin-hat-in-coronakrise-bislang-21-5-kilometer-pop-up-radwege-gebaut/26014504.html>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verkehrsplanung/radverkehr/weitere-radinfrastruktur/temporaere-radfahrstreifen/>

<https://www.infravelo.de/temporaere-radfahrstreifen/>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84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9월 14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